

최소의 가격으로 최대의 만족을

프랑스의 재고도서 전문서점 '막시 리브르'

최연구

《한겨레 21》 파리통신원

파리 북쪽의 몽트뢰이. 베틀시장으로 유명한 곳이다. 연중 사람들로 붐비는 이 베틀시장을 가로질러 조금 더 올라가다 보면 큰 상가가 나온다. 프랑스 최대 유통업 체인 카르푸 수퍼마켓, 전자제품 전문점 다르티, 각종 옷가게들이 모여 있는 건물이다. 말하자면 사람들이 들끓는 곳이다.

부담 없는 가격에 밝고 서민적인 분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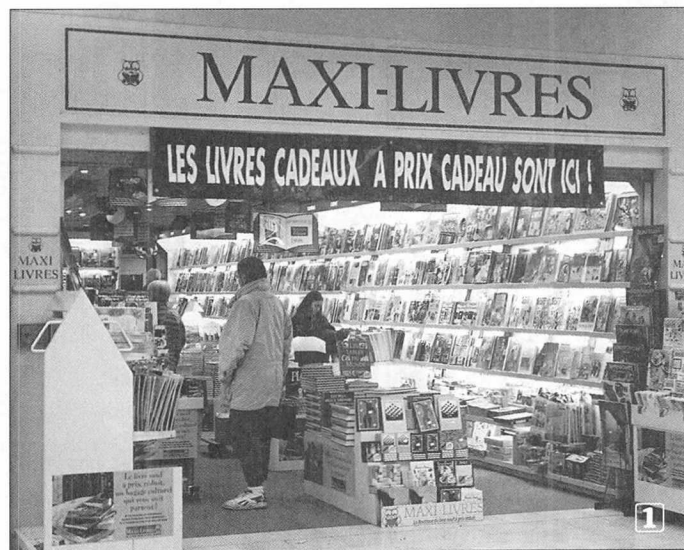
“선물하는 가격대의 선물용 책이 여기 있습니다.”

이 건물 초입쪽에 빨간 플래카드의 글씨가 선명하게 눈에 띈다. 선물하는 가격이라니 도대체 얼마 정도일까. 가게 앞의 매대에 내놓은 화려한 컬러판 요리책들은 대부분 10프랑이라고 붙어 있다. 신간서적에 비하면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가격이다. 현재 환율로 따져보면 10프랑은 환화로 2500원쯤에 해당하지만 한국물가에 견주어 보면 1000원 정도에 해당한다. 매대에 싼 책들을 내놓은 모습은 파리의 어느 서점에서나 볼 수 있는 흔한 풍경이다. 하지만 서점내의 책들도 대다수가 10프랑짜리다. 이렇게 싼 가격에 양서를 판매하는 전국적 규모의 서점은 바로 프랑스 서민들의 책방 '막시 리브르(Maxi-Livre)'다.

전국에 180개의 체인 서점을 갖추고 있어 웬만한 도시면 시내에서 막시 리브르를 쉽게 찾을 수 있다. 가격이 워낙 싸 저질서적이나 중고서적을 파는 곳이라니 생각한다면 아무진 착각이다. 막시 리브르의 모든 책은 엄연히 새 책이고 게다가 양서다. 도산한 출판사의 책이나 재고 도서를 전문으로 판매한다는 데 바로 저렴한 책 가격의 비결이 있다.

막시 리브르는 문턱이 낮고, 말 그대로 서민들의 서점이다. 책값이 부담 없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아예 출입문조차 없어 누구나 쉽게 부담 없이 들어올 수 있게 되어 있다. 내부 분위기도 한없이 밝고 서민적이다. 노란색이 주종을 이루는데 얼핏 보면 서점이 아니라 무슨 장난감 가게 같은 느낌을 준다.

여기에는 정말 서민들이 즐겨 보는



전국 180곳의 체인을 갖춘 막시 리브르는 서민들이 부담 없이 드나들 수 있고 또 마음대로 책을 살 수 있는 진짜 서민들의 책방이다. 노란색의 밝은 분위기, 철저히 실용적인 공간에 요리책·화보집·문학물·사진 등 10프랑 안팎의 싼 책들이 즐비하다.



① 출입문이 없는 서민들의 책방 '막시 리브르'. ② 가판대에 나와 있는 요리책들은 대부분 10프랑 정도. ③ 노란색의 밝은 분위기에 명화집·사진집 등이 즐비하다.

책들만 갖추고 있다. 철저히 실용적인 책방이라 할 만하다. 두서너평 남짓한 조그만 공간에 대중용 도서들만 갖춘 실속과 서점이라고나 할까. 호사스런 책이나 골치 아픈 전문서라고는 찾아볼 수 없다. 가판대에 내놓은 책들은 거의 요리책이다. 햄버거 만들기, 이탈리아 요리, 중국 요리, 금방 할 수 있는 닭고기 요리, 카테일 만들기, 피자 파스타 만들기, 축제 음식 만들기 등등 다양하고 흥미로운 주제의 단행본 요리책들이 총천연색으로 가지런히 진열되어 있다. 대부분은 10프랑이고 좀 두꺼운 것은 20프랑인데, 20프랑이라고 해봐야 프랑스에서는 맥도날드의 햄버거 세트 반값 정도밖에 안되는 가격이다. 초보자용부터 전문가용까지 요리책의 수준도 다양하게 갖추고 있다.

여기 있는 요리책들만 다 모아도 세계요리 전문도서관을 차리고도 남을 직하다. 피카소·마티스·고흐·고갱의 명화집이나 호화판 관광 사진책 등 화보집을 많이 팔고 있는 것도 막시 리브르의 빼놓을 수 없는 특징이다. 여기에서는 시중판매가의 반값이면 화보집을 살 수 있는데 도산한 서점의 책들을 갖다 놓았을 뿐 엄연히 새책이고 정품들이다.

다음으로 많은 책은 문학 서적이다. 문학 책의 경우는 대부분 고전인데 모파상·발작·뒤마·빅토르 위고의 작품을 부담 없는 가격에 팔고 있다. 막시 리브르는 서점조직이지만 고전문학을 위주로 하는 시리즈물을 자체적으로 출간하기도 한다. 저 유명한 《레 막시 포쉬》가 그것이다. 《레 막시 포쉬》에는 볼테르·쉴 베르느·

보들레르·사드·에밀 졸라 등 18, 19세기의 유명한 고전물이 두루 망라돼 있음은 물론이고 대중용 프랑스어 사전, 인문물 사전, 동의어 사전 등 사전류도 포함되어 있는데 모두 10프랑이다.

'10프랑짜리 책'의 철학으로

이 '10프랑짜리 대중서적'이라는 개념은 오늘날 프랑스 출판계에 광범하게 퍼져 있는데 플라마리옹이나 라테스 같은 대형 명문 출판사에서도 10프랑짜리 시리즈물이 나올 정도로 대중화돼 있다. '10프랑짜리 대중서'라는 개념이 처음으로 태어난 곳은 이탈리아다. 사람들이 책은 사고 싶어하지만 책값이 너무 비싸 못산다고 생각한 이탈리아의 어느 출판인이 저렴한 가격에 대량으로 책을 보급하고자 고심 끝에 생각해

전세계 헌책방들이 한곳에

인터넷 헌책방 '비블리오판드' 사이트

허명구 · 하인학술정보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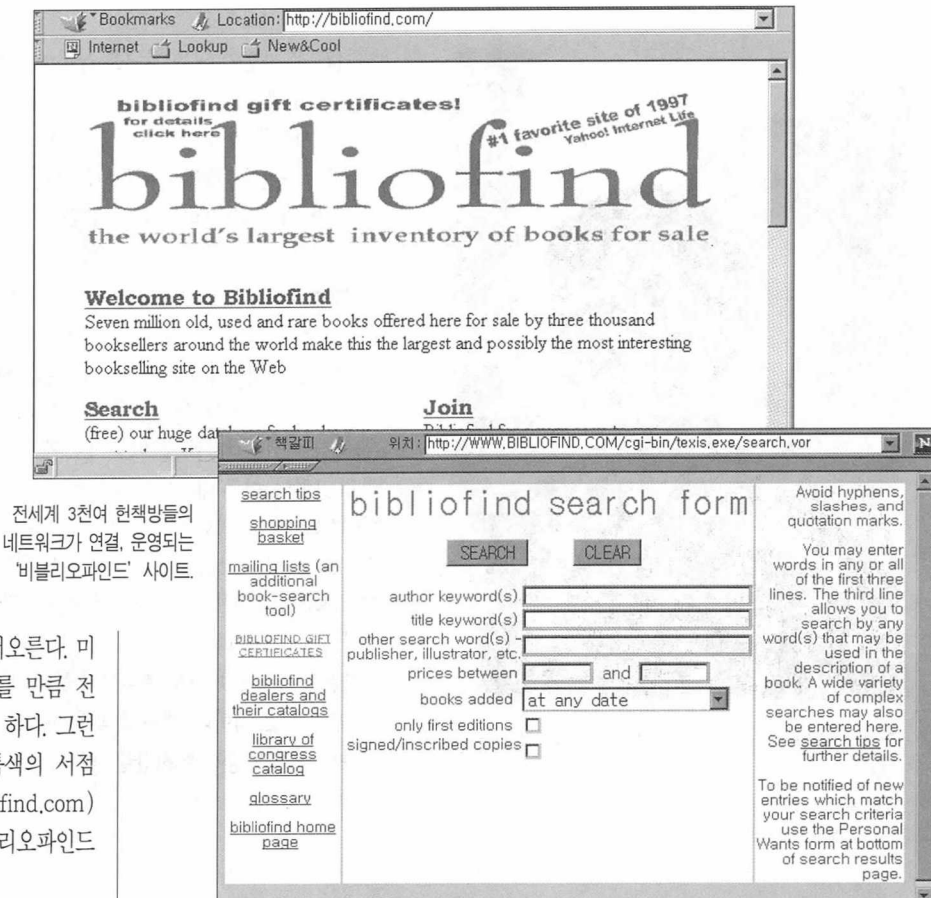
낸 것이 '1000리라짜리 대중서적'이었다. '1000리라'면 겨우 4프랑 정도에 해당하는 가격인데 IMF전의 환율로 치면 겨우 500원 정도이다.

이렇게 턱없이 낮은 가격에 양서를 보급하기 위해서 막시 리브르는 몇가지 원칙을 세웠는데 그 원칙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저작권료가 들지 않는 고전만 출판하고 둘째, 값싼 종이 재질을 사용하거나 인쇄비 절감 등으로 제작비를 낮추고 셋째, 출판사의 수익을 최소화한다는 것 등이었다. 이런 원칙들이 그대로 도입되어 프랑스에 자리잡은 것이 바로 '10프랑짜리 책'이라는 개념이었다. 이러한 도서 대중화 사업의 선두에 바로 막시 리브르가 당당히 서 있다.

막시 리브르는 사전 대중화에도 단단히 헌몹을 했다. '10프랑짜리 책'의 철학을 사전 발행에 도입해 《르 막시 디코》라는 대중용 사전을 펴낸 것이다. 내용 면에서는 권위 있는 라루스나 아셰트 사전에 손색이 없으면서도 3분의 1 가격으로 내놓았다. 《르 막시 디코》의 출간은 대성공이었는데 연간 판매부수가 이미 10만부를 넘어섰다고 한다. 어쨌건 대중용 사전 《르 막시 디코》의 출간은 사전 가격과파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재벌 출판사 아셰트에서 기존 가격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단돈 90프랑에 아셰트 백과사전 대중판을 내놓은 것도 막시 리브르의 공세에 위협을 느껴서였다. 대중들은 '막시 리브르의 책은 무조건 싸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지만 이 책들이 또한 양질이라는 점도 알고 있다. 책하면 비싸고 무거운 것이라는 인식을 부담 없는 책이라는 인식으로 바꾸어놓았다는 것이 막시 리브르의 최대 공적일 것이다. 서민들이 부담 없이 드나들 수 있고 또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책방, 진짜 서민들의 책방 막시 리브르는 그래서 유일무이한 책방이기도 하다.

"새책을 할인된 가격으로, 어디든지 당신을 따라다니는 문화 보따리"라는 막시 리브르의 홍보문구가 의미 있게 가슴에 와 닿는다. ❖

**700만권의 장서를 지닌
어마어마한 인터넷 헌책방
'비블리오판드'는
신속한 검색과 편리한
온라인 구매방식으로만
자신을 주장하는 자신감
넘치는 사이트다. 전세계
희귀본은 물론 초판본,
친필서평이 있는 책까지
찾아볼 수 있다.**



전세계 3천여 헌책방들의 네트워크가 연결, 운영되는 '비블리오판드' 사이트.

인터넷 책방하면 '아마존'이 떠오른다. 미국 증시에서도 다크호스로 떠오를 만큼 전자상거래의 모범이 되어 있기도 하다. 그런데 여기, 아마존과는 또 다른 특색의 서점 '비블리오판드' (<http://bibliofind.com>)가 있다는 것도 알아두자. 비블리오판드는 아마존과는 달리 헌책방이다.

누렇게 빛 바랜 책, 그 오래 묵은 책만이 내는 향기에 취해 청계천 6.7가를 기웃거리던 일은 지금도 정겨운 기억으로 남아 있다. 그러나 인터넷에서 헌책방을 만났을 때의 반가움이란, 탈색된 종이와 풍겨주는 시간의 깊이, 그 독특한 냄새를 맡을 수 없다는 것, 또 책갈피에 끄적여놓은 전 주인 모습을 훑쳐볼 수 없다는 것은 아쉽지만 참을 만하다. 이걸 인터넷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비블리오판드가 어떤 개인취향의 조그마한 인터넷 실험실, 그래픽은 그럴싸하지만 내용은 별 것 없는,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그렇고 그런 인터넷 사이트들 중의 하나 아닌가 하고 성급한 결론을 내린다면 그것은 선부른 일이다. 비블리오판드는 700만권의 장서를 가진 어마어마한 헌책방이니까. 비블리오판드는 유려한 그래픽도 없다. 오직 방대한 장서와 신속한 검색, 편리한 온라인 구매방식으로만 자신을 주장하는 자신감 넘치는 사이트다.

그러나 이 어마어마한 서점 비블리오판드는 단일서점인 아마존과는 달리 전세계

수많은 작은 헌책방들(약 3천여개)의 네트워크다. 아마존에서는 현대적 상술의 강한 상업성을 볼 수 있다면, 이 비블리오판드에서는 작은 것들이 모여 큰 덩어리를 만들어내는 맛과 분위기가 오히려 진하게 풍긴다. 그러다 보니 혹시 우리나라처럼 출판규모가 영세한 곳에서는 이렇게 출판사들이 네트워크를 만들어 뭔가를 해 볼 수도 있으리라는 느낌이다. 그게 무엇일까는 출판사를 꾸리는 분들이 생각할 몫으로 남기고 비블리오판드의 내용과 기능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 보자.

구매를 원하는 사람은 검색창에 원하는 책명이나 저자 등을 기입하고 엔터키를 누른다. 그러면 해당 책을 소장하고 있는 전세계 헌책방이 소개되고, 그 책방에서 팔고자 하는 가격을 볼 수 있다. 동일한 책이라 하더라도 책방마다 소장하고 있는 책의 판본이나 가격이 가지각색이니까 그 중에서 고를 수 있다. 원하는 책이 발견되면 표시창에 표시, 온라인으로 바로 주문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일반적인 헌책방 아니라 초판본만 찾아볼 수도 있고, 저자의 친필서명이 있는 책만 찾아볼 수도 있다. 시험삼아 알버트 아인슈타인의 서명이 든 책을 검색해 보았다니 전세계에서 8권을 찾을 수 있었다. 물론 이런 것은 희귀본이어서 가격이 비싸다. 그 외에도 고전이 된 명저 대부분을 이 책방에서 구입할 수 있다.

만약 찾고자 하는 책이 없다면, 또는 가격대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검색결과가 표시된 페이지 하단의 '퍼스널 윈드 리스트'에 책명을 기입해 본다. 그러면 비블리오판드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자료를 검색해 새로운 정보를 제공해준다. 사용료는 없다. 단 헌책방이 이 네트워크에 가입하고자 하면 일정한 액수를 부담하게 되어 있다. ❖